

## 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속에서도 나눔경영 이어져

- 2012년 총 720억원 규모의 이웃사랑 실천

- 건설경기 침체로 중견건설사의 사회공헌 규모는 크게 줄어

극심한 건설·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불우한 이웃,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나눔경영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예년보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연말을 맞아 지난 11월 롯데건설은 서울 104마을과 부산 매축지마을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연탄 4만장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였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포항, 광양 및 부산지역에서 120여 가구에 연탄 2만5000장을 직접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해 소외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안성시 미리내마을에서 임직원들이 김장을 담궈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눠주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를 가졌으며, 지역 중소기업인 금성백조주택 임직원들도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대봉사활동과 성애요양원에서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하였다.

12월에는 현대건설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지역 내 소외계층 20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8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겨울방학기간 도시락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노원구 중계동 104마을을 방문하여 연탄 1만장과 쌀 2,000kg을 전달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사인 화성산업은 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벽지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2012년도에 총 722.5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천해 2011년 623.1억원 보다 99.4억(16.0%)증가하였다. 건설단체는 2011년 37.2억원에서 2012년 36.9억원(0.8% 감소)의 지원을 하였고, 건설업체는 2011년 585.9억원에서 2012년 685.6억원(17.0% 증가)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회공헌분야 지출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건설사들의 사회공헌지출 금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현금이나 현물기부 보다는 주로 인력지원 형태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 건설업계 사회공헌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1년        | 2012년        | 증 감          |
|------------|--------------|--------------|--------------|
| 건설단체       | 37.2         | 36.9         | △0.8%        |
| 건설업체       | 585.9        | 685.6        | 17.0%        |
| <b>소 계</b> | <b>623.1</b> | <b>722.5</b> | <b>16.0%</b> |

### 종합건설업체 시평균 순위별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1년        | 2012년        | 증 감          |
|------------|--------------|--------------|--------------|
| 1~10위      | 177.8        | 333.5        | 87.6%        |
| 11~30위     | 70.9         | 24.5         | △65.4%       |
| 31~50위     | 14.3         | 11.6         | △18.9%       |
| 51위 이하     | 322.9        | 316.0        | △2.1%        |
| <b>소 계</b> | <b>585.9</b> | <b>685.6</b> | <b>17.0%</b> |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 : 업계 사회공헌사업 사례사진. 끝.



사진설명 :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11.30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암마을에서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설명 : 삼성엔지니어링이 11.22 경기도 안성시 미리내마을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다.



사진설명 : 계룡건설이 11.22 대전 유성구청을 방문, '사랑의 쌀' 4,240kg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설명 : 금성백조주택 11.30 성애요양원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다.